

45

내가 너로 파숫군을 삼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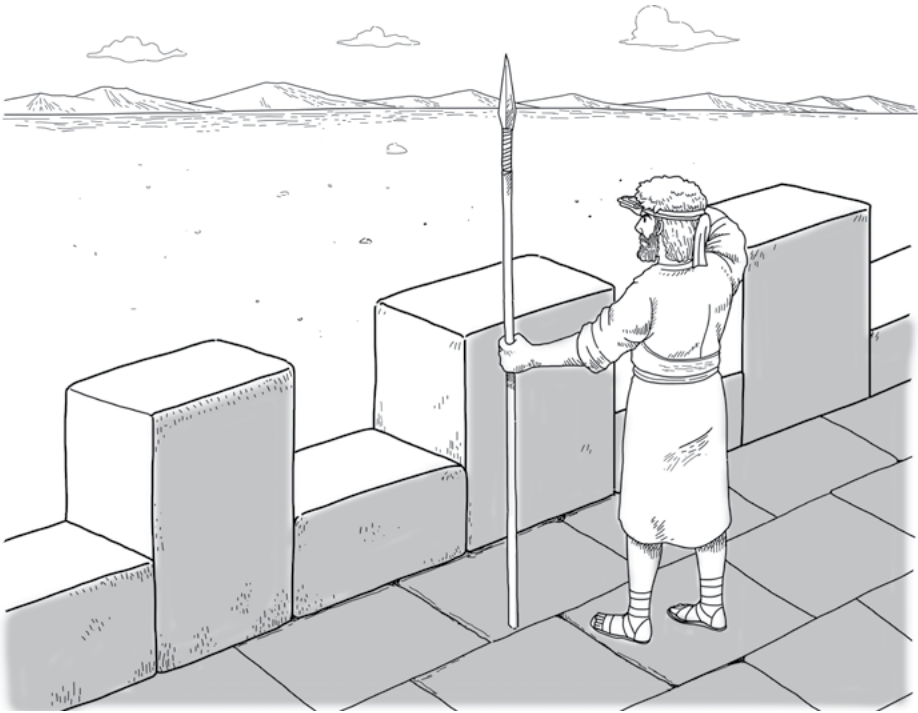
겔 3:16~21, 33:1~9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98장 (주가 필요해)

오늘 배울



1. 파숫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압니다.
2.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파숫군으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겔 3:17)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겔 33:7)

So you, 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therefore you shall hear a word from My mouth and warn them for Me. (Ez 33:7)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의 파숫군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암송 말씀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성경 속의 파숫군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 적어봅시다.
합 2:1~3

사 21:8, 58:1

암 3:6

렘 6:13~17

② 1번을 참고하여 파숫군으로서 역할을 게을리 했을 경우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③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파숫군)로서 전파해야 할 대상을 적어 봅시다.
전파 대상 :

④ 우리가 파숫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시를 보고,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파숫군	나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목소리가 커야 한다.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24:1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사 21: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사 58: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겔 3:17

가

겔 33:6

마

롬 10:14~15

바

고전 9:16



잠잠하지 마라

G.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밀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비밀을 버려라!’라고 외친 J. 설크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비밀을 지키는 일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들은 우리 역시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침묵은 실로 죄가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4)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간청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눅 16:27~28)



질문 있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급기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창 11장).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민족이 아닌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니라” (신 7:7)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 그 민족을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나,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한지 1900년 만에 그 옛 땅에 다시 세우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겔 37:11~14)